

로컬리더스



부안해풍양파, 대만 수출길 올라

청정 해역의 해풍을 머금고 자란 부안 해풍양파 500톤이 대만으로 수출되어 농가소득 작목으로 큰 몫을 하고 있다.

부안군 부안천년외솔추출공동사업법인(대표 김형기)을 통해 부안중앙농협·남부안농협·하서농협에서 계약 생산한 부안해풍양파 500톤을 27일부터 각종 산지유통센터에서 컨테이너 상차를 시작으로 대만수출길에 오른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 및 소비 감소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해의 신규시장 개척으로 부안해풍양파의 해외인지도 향상은 물론 수급안정 도모와 생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군은 지역의 주 소득원인 부안 해풍양파는 청정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병충해에 강하고 육질이 단단하여 저장기간이 오래가며 그 맛이 매우면서도 동시에 단맛이 나는 특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최고의 경락가격으로 인기가 높다. 이번에 수출하는 부안 해풍양파는 컨테이너 20대 분량 500여 톤으로 7월까지 부산항을 통해 선적기로 하였으며, 수출금액은 20kg 1량당 1만2천원대로 총 3억 원의 농가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회에 부안 산 해풍양파를 장기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농협 계약재배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수출조직 육성 및 품질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백산파출소, 일상병 환자구해

김제경찰서 백산파출소 이원일 경위와 기세준 경사는 지난 28일 낮 12시 4분께 낚시 차량안에 사람이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차량내에는 남자 1명이 의식없이 누워 있고 입주위로 거품이 흘러고 있어 위험성을 직감하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량 기사, 주민, 119구급차의 도움으로 차량을 열고 운전자를 익산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했다.

환자 후송 후 차량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처방전이 발견되어 병원을 알려줘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도록 했다.

검사결과 환자는 간기능장애로 인한 일시적 일상병이고 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판명되었다.

백산파출소는 대다수 주민들이 고령자로 여름철 농사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주민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백산면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보건소, 장애인 낙상예방 운동

부안군 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운동 프로그램인 "후마네트 운동"을 지난 21일부터 9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12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최초로 보건기관에서 선보이는 후마네트 운동 프로그램은 지난 200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발에 걸리거나 잡히는 네트의 성질을 이용한 걷기 프로그램이며 균형 운동의 학습, 지속적인 집중력 향상을 통해 낙상 예방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후마네트 운동법은 우선 50cm 사방의 네모 칸으로 구성된 네트를 바닥에 깔고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 네트를 밟지 않고 주의를 집중해 건너면서, 네모 칸과 좌우 발이 움직임을 조합한 다양한 스텝을 학습하는 운동이다. 특히 노래와 율동을 결합하면서 운동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총력

차선도색 등 5개 사업에 8억 900만원 투입... 보행자 안전 확보 도모

정읍시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8억9000만원을 확보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완료된 사업을 보면 2억8천만 원을 투입해 차선 시야 확보가 불량한 충정로와 뱃꽃로, 동부로를 비롯 읍면동 28개 노선 69km와 시내 횡단보도 162개소에 대한 도색을 마쳤다.

또 4천500만원을 투입해 농소주공아파트 앞 도로 145m에 간이중앙 분리대를 설치했고, 2천만원을 들여 신대인 시장 등 2개소에 횡단보도 LED 안전등을 설치했다.

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비 및 설치를 나설 계획이다.

먼저 1억6천만원을 들여 야간에 시인성 확보가 요구되는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도색을 나서고,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샘골어린이집 등 총 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6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할 카메라는 200만 화소로 야간에도 선명한 컬러영상 촬영이 가능한 최신의 초저조도 극복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통과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고화질 영상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범죄예방 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호남과 및 농소동 구간단지 2개소(L=219M)에 대한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6천600만원), 신태인 실내체육관 등 8개소에 대한 횡



특히 이번에 도입할 카메라는 200만 화소로 야간에도 선명한 컬러영상 촬영이 가능한 최신의 초저조도 극복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6천600만원)와 함께 4천200만원을 들여 31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표시와 표지판을 새롭게 설치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기 전 미리 미리 시설물을 보완하고 확충함으로써 선진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6천600만원)와 함께 4천200만원을 들여 31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표시와 표지판을 새롭게 설치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기 전 미리 미리 시설물을 보완하고 확충함으로써 선진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날 행사는 난타·민요와 한축 그리고 색소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한 위로공연으로 시작해 이태운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안보교수의 안보강연과 북한의 침상을 소개한 동영상 상영으로 이어졌다.

김제시재향군인회, 6.25전쟁 제 66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김제시재향군인회(회장 박영봉)는 2016년 6월 25일 제6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견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김종회 국회의원, 정성주 시장의 장 및 시의원들과 각급기관 단체장, 6.25 참전용사, 보훈가족, 그리고 김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등 4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전용사들의 명예연양과 위국헌신의 노고를 위로하며 국가인보의 중요성과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난타·민요와 한축 그리고 색소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한 위로공연을 시작으로 이태운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안보교수의 '테러전쟁과 IS 그리고 북한'이란 주제로 안보강연에 이어 북한의 침상을 소개한 동영상 상영으로 이어졌다.

김제시재향군인회 박영봉회장은 대회사에서 "위국헌신의 표상이며 진정한 전쟁영웅이신 6.25참전 용사

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6.25전쟁이 남긴 교훈을 되새겨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결의를 새롭게 다졌으며 전후세대 중, 고등학생을 기념행사에 참여시켜 6.25전쟁의 실체를 학생들에게 확실히 알릴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탄탄대로의 국력으로, 피로써 지켜낸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후세에도 길이길이 보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현안해결 논의

국회의원·도·시의원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이견식)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중회 국회의원과 강병진·정호영 도의원, 정성주 시의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시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하는 시정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2017년도 국·도비 주요사업에 대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정 주요현안 과제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수목원 예타 통과, 김제육교 재가설,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등에 대해 정정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중자가공처리센터구축과 보훈

회관 건립, 검산시영아파트 승강기 설치, 금구면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 등 2017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해서 행정과 정치권이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김제시는 정부의 2017년 재정 지출 방향이 SOC, 산업, 농업 분야 등을 축소하며 신규사업 억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견식 시장은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식중독 의심 증세에 역학조사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50여 명이 집단으로 설사와 구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7일 부안군 등에 따르면 부안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 470여 명 중 50여 명이 지난 25일과 26일부터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24일 점심 급식을 먹은 이후로 이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부안군과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가검물 등을 채취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논콩 최적재배환경 실증 등 연구사업 활기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연계 7개 과제 수행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농촌진흥청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 맞춤형 시험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지역에 맞는 최적의 영농기술 개발 및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과 연계한 시험연구사업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요 연구과제 내용을 보면 쌀 재고량 증대에 따른 벼 대체작물 육성을 위하여 논콩 최적의 재배환경 실증, 드론 및 로봇제초를 통한 생력재배기술 실증, 인삼 분화재배를 위한 포장용기 개발, 송아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량류 처리기술 개발, 돈사

냄새저감 실증 기술, 재할 승마용 말 선발 매뉴얼 적용, 블루베리 소득 분석 조사표 개발 등 7개과제로 진보된 문운만 농가를 비롯하여 16농가를 선정하여 각 과제에 맞는 시험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고구근 지원기획담당은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국립식량과학원, 원예특작원, 축산과학원 등 농업전문 연구기관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최적의 농지여건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연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투입되는 과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촌진흥청과 함께 우리 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미영농조합법인 김제지사, 쌀 정기 후원

금미영농조합법인(대표 김민석)은 27일 관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쌀달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20kg) 15포를 김제시에 전달했다.

김미영농조합법인 김제지사는 올 3월부터 꾸준히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매일 15포씩(60만원 상당) 소리 없이 후원하고 있다.

김민석 금미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역주민들이 주신 관심과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 지역발전에는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매일 정기 후원된 백미(20kg) 15포

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및 통합사례관리사와 연계하여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세대 등 저소득 가정에 방문 전달되고 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이웃사랑 나눔 실천이 행복하고 따뜻한 김제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매일 기부된 사랑의 쌀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금미영농조합법인 김제지사는 2014년 1월 1일 광활면 소재에 설립한 쌀, 곡물, 소맥면 도매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웃사랑 나눔실천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체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긴꼬리투구새우는 고생대 화석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갑각류이다.

'긴꼬리투구새우' 서식 확인

고부 논제 친환경농업단지서... 깨끗한 생태환경 증명

농약·비료 등 화학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논에서 자취를 감췄던 긴꼬리투구새우가 고부면 신중리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면에서 발견된 고부면 신중리 일대(친환경농업 논제 1·2단지)는 친환경농업으로 비를 재배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31.4ha 중 3.3ha(약 만평) 이상의 논에 긴꼬리투구새우가 서식하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갑각류이다.

흙을 휘저어 먹이를 찾는 습성 때문에 흙탕물(탁수효과)이 발생하면서 햇빛을 차단하여 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등 해충억제·제초제 역할을 하여 친환경농업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 관계자는 "고부 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제초제 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논투렁도 일일이 예초기 작업을 하여 투구새우, 풍년새우, 우렁 등의 개체수가 늘면서 이곳이 청정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 논제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박종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친환경농법을 시작한 이래로 3년차부터 투구새우가 서식하기 시작했다"며 "그만큼 고부면 생태환경이 깨끗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에서 생산된 고시카리 쌀은 (췌장)농(소성면) 소재 유기농쌀 업체)에 전량 납품되어 대도시에 위치한 백화점 및 판매점에서 일반 비의 30~40%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고부면, 인구회복 캠페인

정읍시 고부면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15만 회복 인구 늘리기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4일 고부면 소재지 일원에서인 구 늘리기 캠페인을 가졌다. 캠페인에는 이장협의회(회장 김기수)와 면사무소 등 기관단체장 5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면사무소 및 농협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제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시간이 없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 또는 농공단지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정읍에 거주하고 있으나 업무시간이 겹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 전입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를 안내하고 전입시의 혜택 등을 홍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